

도시공사, 매출 5분의 1토막 난 사이 초임 연봉 2배 꺾춤

광주 4개 공기업 5년 운영구조 분석

지난 5년간 광주 공기업의 수익구조는 최악으로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연봉은 꾸준히 상승했다. '책임 경영'이 사라진 것이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초임을 매년 올리면서 인원을 채용, 조직 및 인건비 규모를 키워 광주시의 부담만 늘어났다. 수장을 선임하면서 혁신성·전문성·경쟁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미비했으며, 경영 혁신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 새로운 사업 모색 수익창출 수단 다변화해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사업 이후 도시공사의 실적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5년 도시공사는 매출액 402억3400여만원, 당기순이익 285억여원으로 최고의 호황이었다. 2013년 1882억여원, 2014년 2723억여원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754억여원, 2017년 797억여원으로 최고 정점이었던 2015년에 비하면 5분의1토막이 났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개발·분양 수익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실적 부진에도 초임 연봉은 1574만여원에서 3074만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5243만여원에서

도시철도공사, 작년 시지원 453억

DJ센터, 만성적자 구조 고착화

환경공단, 직원수 줄이고 임금 높여

6339만여원으로 뛰었다.

◇도시철도공사, 단순 운행에 직원 증원 인건비 '꺾춤' 도시철도공사는 2002년 설립 이래 1호선 단선을 운행하고 있다. 관리해야 할 시설이 크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2013년 15명의 인원을 초임 2664만여원에 채용한 공사는 2014-2015년을 건너뛰고 2016년 16명(초임 2862만여원), 2017년 20명(2951만여원) 등을 뽑았다. 직원 평균 연봉은 2013년 5061만원에서 2017년 6086만원으로 올랐다. 매년 200만~300만원을 높여온 덕분이다. 공사는 광주시로부터 2014년 398억여원, 2015년 405억여원, 2016년 423억여원, 2017년 453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결국 공사의 직원 채용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의 재정 지원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셈이다.

◇DJ센터, 만성적자 구조로 시설 개선도 필요=센터는 지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로 인한 임대수익 증가로 단발성 흑자(1억4200만원)를 달성했으나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아(2017년 결산 전

체 비용 중 18.5%) 만성적자 구조가 고착화됐다. 감가상각비와 개관 10년 이상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순수 자립경영을 통한 당기순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적자 폭은 지난 2013년 1억3000만원, 2014년 9억4000만원, 2016년 8억8000만원, 2017년 17억3700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명, 2015년 6명, 2016년 1명, 2017년 7명 등을 신규채용하고, 인건비 비중도 2013년 14.85%에서 2014년 15.51%, 2015년 21.14%, 2016년 26.54%, 2017년 24.63%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위탁운영(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인력의 직접 고용 전환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직원 평균 임금 역시 상승했다.

◇환경공단, 매출 감소에 직원 수 줄이고 임금은 높아=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 매출액이 581억여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 560억여원, 2017년 525억여원으로 다소 감소 추세다. 임직원 수 역시 지난 2014년 388명에서 2015년 377명, 2016년 372명, 2017년 353명으로 줄었다. 다만 직원 평균 임금은 지난 2014년 4541만여원에서 2015년 4981만여원, 2016년 5030만여원, 2017년 5598만여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광주시 산하 공기업 4곳이 지난 5년간 매출 감소, 적자 누적 등 사업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직원 평균 연봉을 꾸준히 인상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도시공사 정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여야 협치 끌어내 팍막힌 국회부터 풀겠다”

주승용 하반기 국회 부의장 인터뷰

한국당 일방적 반대편 과감한 결단
호남민심 등대 삼아 새로운 길 모색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광주의 박주선 의원(동남 을)이 부의장을 맡았다.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 국회부의장을 광주·전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잇따라 맡은 것은 현정 사상 최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원만한 성품과 성실성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 구도하에서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 협치의 길을 열 수 있는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박풍과 함께 호남 정치권의 지형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일보 1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운영 계획과 정치 전망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의 국회를 진단한다면?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국회는 꼭 막혀있다. 여야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종 민생개혁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결국 협치가 화두다. 여권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망스럽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 청와대가 일방적 국정 운영에 나서고 내각과 여당은 뒤 따라가기 바쁘다. 야권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 서부터 생산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의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 다당제 국회 구도에서 제3당 출신 부의장이라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을 소통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개혁입법연대가 가능하지 않나.

▲일단 개혁 법안 가운데 모든 정당의 합의가 가능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법안은 개혁입법연대라는 큰 틀에서 조율해야 한다.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보수 정당이 일방적 반대에만 나선다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다.

-호남 정치가 분열되면서 호남의 정치적 역량이 약화됐다는 시각이 있는데.

▲호남 민심은 2년 전 국민의당을 통해 다당제

구도라는 역사적인 '제3의 길'을 창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란 속에서 이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됐다. 분열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에 참패,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지만 호남 정치가 여기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민심을 등대 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길이란 정계개편을 말하는가.

▲그렇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계개편의 지각변동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내 패권주의 등 분열과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도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경제와 민생은 위기 상황이다. 여권은 집권 2년차에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야당은 말 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분당이 시간문제인 것 같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들다. 결국 정계개편은 시간문제다.

-중진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 호남 중진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중진들이 헌신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호남 정치권이 직면한 현실에 중진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제가 먼저 호남 의원들과 정치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역할을 하겠다.

광주시 이용섭 시장 공약 세부실천계획 수립 나서

광주시가 민선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시정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로부터 이 시장이 출마선언 이후 약속한 '1자리 2용섭 12대 시민공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14대 핵심공약과 74개 실천과제를 제안받았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4대 핵심공약, 74개 실천공약에 대해 각 실, 국, 분부, 직속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광주혁신위원회와 토론을 거쳐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연차별 추진일정, 사업비 투입규모, 실행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13일부터 시장 주재 '주요 역점시책 및 공약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 검토를 거쳐 수립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통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년 연속 소형 SUV
누적 판매량 1위

티볼리 Hello Summer Festival

티볼리가 바캉스 쿠폰을 시원하게 쏜다!

티볼리 Hello Summer Festival 행사 안내

행사 1

휴가비 쿠폰 20만원 or 롯데 호텔 상품권 20만원

- 대상: 티볼리 출고 고객 (7월 중)
- 기간: 2018년 7월 2일~7월 31일
- 참여방법: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내 쿠폰 인쇄

행사 2

- 1등(1명) 리모와 캐리어 29인치
- 2등(5명) 레이벤 클럽마스터 선글라스
- 3등(100명) 빌리프 UV 선크림
- 4등(500명)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 대상: 티볼리 출고 고객 (7월 중)
- 기간: 2018년 7월 2일~8월 31일
- 참여방법: 차량 출고시 자동 응모
- 발표: 2018년 9월 7일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티볼리 아머 & 에어 7월 판매조건

기본 혜택	특별 추가 혜택
선택 1 3.9% (48개월) + 5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인치 내비게이션 + 2채널 블랙박스 또는 50만원 (일시불 시) 여성 운전자 10만원 바캉스 쿠폰 지급 고객 20만원 로열티 프로그램: 10만원(2대째)/30만원(3대째 이상)
선택 2 4.5% (60개월)	
선택 3 4.9% (72개월)	
선택 4 5.9% (국내최장 120개월) + 50만원 지원	

* 100만원: 할부원금 1천만원에 한함 (할부기간 36개월)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출고고객에 한함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점	광주중앙 529-0003	서광점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운암	573-8900
전남점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광양	791-0071	나주혁신	331-1500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암	473-3456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영보	852-2892	서광알	761-8900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 542-5888	함평	324-3800	여수구룡	642-1400	여수	782-9300						